만들다 만 자전거도로 '먼지 풀풀'

광주~송정리 자갈만 깐 채 중단…상가·주민들 고통

광주~송정리간 도로변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1년여가 되도록 50% 공정에 그쳐 인근 상가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인데도 자갈만 깔아놓은채 공사가 중단돼 주변 상인들이 먼지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행자들 역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올해 초 착공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서창 마륵동~장암마을 ▲장암마을~공항 웨딩타운 ▲공항 웨딩타운~송정리역 ▲송정리역~평동 옥동 까지 4개 공구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보도조성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데 보도조성 공사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자전거 도로는 지연되고 있다.

송정리역~공항 웨딩타운까지의 경우 연장 1.73㎞의 보도 조성 및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는 올 초부터 H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나 자갈 등으로 도로 기층만 다진채 포장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주민 K씨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먼지가 날려 상가 문을 열어 놓을 수 가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영업에도 지장이 많다"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지하철 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주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작한 공사"라며 "노후된 가로등 선로교체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성 버스터미널 쾌적해진다

2개소 오늘부터 시설개선사업 착수

오지마을 노선도 신설

장성군이 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해 22일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86년 준공된 장성공용버스 터미널은 2000년에 부분 보수를 실시했으나 건물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높다. 또 사거리 터미널도 80년에 건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성군은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이용승객이 감소돼 업체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군비를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성군관계자는 "공사 불편을 덜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9월 1일부터 21개 벽·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2~4회의 버스 운행노선을 신설했다.

또 9개 노선을 증회하고 종점지를 연장하는 등 총 31개 마을에 56회를 추가 운행, 군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유통마진 돌려 드립니다"

가격폭락 시름 배추농가 찾아 농협 목포유통센터 수확·판매

"유통마진을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농협 목포유통센터가 배추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 있는 배추농가를 찾아가 직접 수확한 뒤 판매까지 해 주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유통센터는 21일 "직원 15명이 배추값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이영철(72)씨 배추밭 2천여 평에서 배추를 직접 캔 뒤 유통센터로 가져와 전량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기당 400원에 매입한 이 배추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값인 200원에 팔아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는 것.

김세익 목포유통센터 사장은 "산지에서는 배추 한 포기 값이 100원에도 못 미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1천 원에 육박해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불만"이라면서 "목포유통센터 직원들의 직접 수확, 운송 등으로 남는 유통마진 모두를 농민과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한농인 영암연합회장에 김주영씨

한국농업경영인 영암연합회 13대 회장에 김주영(47·사진)씨가 선출됐다.

김회장은 "회원 화합에 역점을 두고 연합회의 위상제고와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농민의 마지막 희망을 살리는 '농촌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영암군 금정면 태생으로 한농연 금정면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감사·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신안군 신청사 이전 '시끌'

"재검토 해야" "건립공사 계속" 논란

신안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삐걱' 거리고 있다.

지난 5월 착공돼 15일 현재 76억원이 투입돼 13%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최근 재검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마저 중단됐다.

신안군의회 정영도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청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5·31 선거 때도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신임군수 취임과 동시에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집행부나 의회의 합법적인 절차와 군민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회 일각에서는 청사 이전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영모 의원은 지난 9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청사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48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이 크다"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원칙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신안군도 양 의원의 재검토 발언 이후 지난 15일 "겨울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시행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반면 청사가 이전될 압해도 주민들은 "군민의 최대 숙원 사업인 청사 이전 사업을 의결할때 참여한 의원이 재검토 발언을 하고 겨울철에도 날씨가 따뜻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사를 중지하는 신안군의 속셈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가로수 병해충 방제

해남군이 최근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잠복소'를 설치했다. 잠복소는 월동을 위해 지면 가까이 내려오는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살충 포집기를 가로수에 묶어주는 것으로 내년 2~3월께 소각 처리된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記者日記

평일에 벌인 '공무원 잔치'

정은조 〈부국장·사회2부 완도주재〉

완도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무더기로 자리를 비우고 가족들을 동반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벌여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5일 완도군 약산면 산문산 진달래 꽃동산에선 때아닌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금면 직원·가족 40여 명과 약산면 직원 30여 명이 한데 어울려 잔치판을 벌인 것이다. 이자리에는 술과 음식은 물론 노래 반주기까지 동원됐다.

이날 약산면은 농협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 등급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땀흘려가며 지난 1년간 농사를 지어온 면민들은 공무원들이 잔치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격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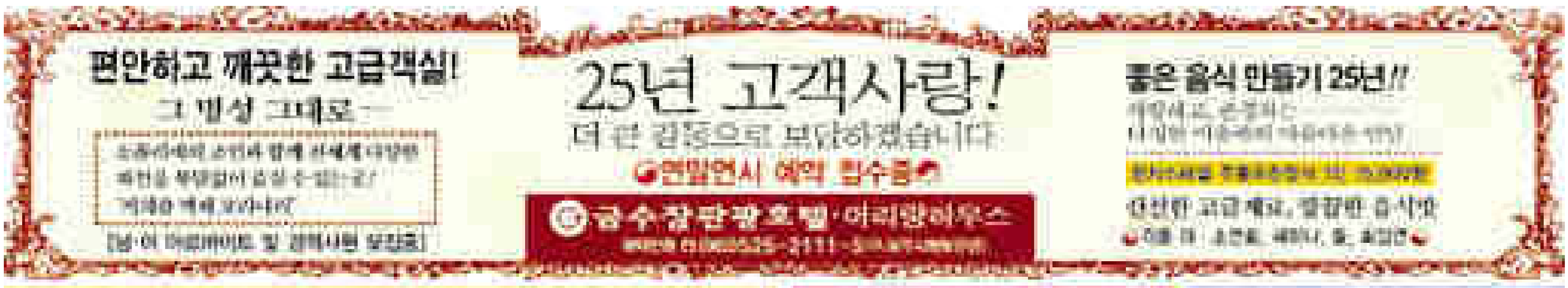
면민들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보고 농민들을 격려해야 할 공무원들이 가을 잔치가 웬 말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고금면장과 약산면장은 두 면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이날 놀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면민들은 빠진 채 공무원들만의 축제판으로 전락한 이날 행사가 과연 양 지역의 화합과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설령 공무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효과는 거뒀을지 몰라도 민·관의 위화감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이제 완도군 의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는 점도 조목조목 파헤쳐야 한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공직풍토가 언제쯤 사라질 것인지 완도군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ejchung@kwangju.co.kr